



노사대토론회 평가와 전망

현장의 많은 문제점에 노사가 공감대 형성한 큰성과 이뤄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노사대토론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몇가지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문제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노사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안겨주었다.

노동조합을 창립한지 22년이 됐지만 그동안 노사의 공식적인 만남은 교섭의 자리뿐이었다. 교섭은 중재나 협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뺏고 뺏기는 관계로 점철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섭방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노사관계는 사뭇 적대적 관계로 인식돼 왔다. 대부분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섭해태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노동조합은 이러한 관행에 맞서 투쟁과 파업 등의 무기를 남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일방적인 경제성장의 논리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성과가 그러한 국민적 영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T노동조합 8대 집행부는 출범초기부터 변화를 주장해왔으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노사대토론회도 이러한 노동조합의 일관된 맥락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노동조합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장과 임원진에게 현장의 정서와 문제의 심각함을 직접전달하고 이후 노사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을 두었다.

경영진은 그 위치에 맞는 권한이 있는 만큼 진솔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검토후 조치하겠다”거나 “몰랐다”는 식의 방어적인 자세 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임원다운 모습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KT노사 모두에 성과와 함께 과제를 남겼다.

첫째, 투명한 노사관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전에는 항상 숨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했으며 상대는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가지 분석을 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오해를 사기도 했다. 노사대토론회에서 상품판매, 통신정책, 기업문화, 조직개편 등의 문제점은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이다. 토론이 구체적인 이행방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해당 문제점에 대해 노사가 같이 공감한 만큼 문제해결에도 노사가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KT의 큰 문제중 하나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탁상공론이었다. 이는 종사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는 주요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노사합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대토론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서로를 긴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KT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사 서로가 인지하지 못한 것들과 오해한 문제들을 토론을 통해 제기하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실행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혜롭게 도출시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점검하는 정기적인 노사대토론회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사대토론회가 한국최초나 KT창사이래 최초라는 외형적 수식어 보다는 실천력을 가진 토론회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하계 단일 근무복 A/S 관련 공지사항

사업부서내 우선 교환,
피복담당이 회수후 의뢰 조치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단일 근무복(하복) 지급 합의에 따라, 현재 하계 단일근무복이 지급중에 있으나, A/S관련 노동조합에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옷 수령후 바로 착용해 보시고, 사이즈 교환 등 A/S 필요시는 아래 사항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차 : 지역본부 및 사업부서 내 우선 교환
 - 지역본부 및 사업부서 담당은 본부 내에서 교환 가능한 사이즈 파악 후 교환 조치
- 2 차 : 지사 및 지정 피복담당 교환 의뢰
 - 사이즈별 수량 파악하여 현대택배 1588-2121 로 회수 의뢰 (약 1 주일 소요)
 - ◆ 반송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3-4 남동공단 96B-5L
 - ◆ 담당자 : 김기웅과장 032-818-5008
 - ☎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교환은 불가, 세탁방법 등 기타사항은 옷 안에 안내문 참고

※ 기타사항 : 옷 안주머니는 단추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지품 넣으실 때 주의.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명예퇴직자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처리 방법 및 일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빠른 기일내에 환급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퇴직사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환급처리 방법 : 회사일괄환급처리 방침
 - KT업무대행시 세법절차상 환급대상자의 위임장 작성 필요
 - KT는 사이버상의 전산위임장으로 작성 제출토록 업무협약

○ 위임장 작성 요령

- ① KT사이버복지관(<http://b4u.kt.co.kr>)에 로그인
 - ② 자동화면 안내
 - ③ 위임장 작성하기 클릭
 - ④ 위임장에서 "동의함" 클릭(완료 메시지)
 - 작성기간 : 2004.5.28 ~ 6.10(14일간) 까지 (28일 게시예정)
 - 작성대상자 : KT사이버복지관 로그인 시 자동 안내화면 생성자
- ※ 위임동의후 개인별 추가환급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신청서는 해당자 전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일정안내

- 2004.6월초 위임신청자 집계 작업
- 2004.6월중순 : 국세청 전산매체제출 및 퇴직소득세 환급 요청 : 2004.6월중순
- 2004.7월중순(예정) : 국세청 환급요청액 입금과 동시 개인별 입금완료 (국세청 환급요청액 입금시기에 따라 환급일자 변동가능)
- 2004.7월~10월 : 전국 시.군청별 퇴직주민세 조정환급 및 환급요청
- 2004.10월말(예정) : 퇴직주민세 개인별 입금조치 (환급요청 시.군.구청별 입금시기에 따라 환급일자 변동가능)

☞ 입금계좌는 ① 퇴직금지급계좌→ ② 재직시급여계좌→ ③ 재직시 별도계좌 순으로 입금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사항은 본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지부, 분회장께서는 퇴직자와 상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노사대토론회에 대한 조합원 한마디!



<출처 : 전사판 5-25>

일회성의 쇼?? 아님 전화위복의 기회

우리 모두는 현재 KT 호라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이, 직위, 직무 보다는 앞서서 회사의 영구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종사원들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투명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주의와 불신편배라는 현대사회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노사대토론회만 해도 나부터도 그 의의를 되새기고 함께 고민하려고 하기 보다는 무슨 특별한 결과라도 나오겠어? 일회성의 쇼가 아닐까?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도 하늘에서 그냥 툭하니 내입으로 떨어지는 흥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소위 회사의 우두머리라는 경영진과 조합원의 대표자인 노조 간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불신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에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인다.

우리 모두 꺼져가는 애사심을 되살리고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다가가보자.

노사대표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신뢰의 불씨를 우리 가운데에 피우려는 노력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경쟁사들은 뛰고 있고 앞을 보며 저만치 나아가고 있는데도 오직 우리만이 과거의

영광(환희)만을 생각하며 구태의연한 틀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통신공룡으로서 도태될 미래만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이젠 정말로 회사에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를 거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만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화이팅!!

<출처 : 조합게시판 5-25>

KT 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 KBN 을 통해서 노사대토론회가 매우 의미있는 것이 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 월 대란설이 마치 사실인양 우리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되었다.

세종로 본사사옥을 정리해서 명퇴금으로 활용한다, 최고 120 개월을 준다, 이번에는 나이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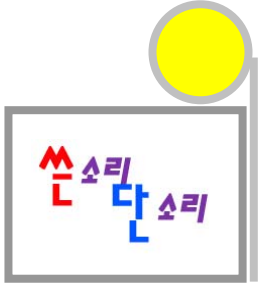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니 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KT 에 몸담고 있지만 요즘 KT 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지 못하는 사연들, 회사에 대한 자긍심, 비전보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음 기회에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노사대토론회는 5 월 초 노동조합에서 일정이 고지 되었고 노동조합은 나름대로 준비를 위해 노심초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토론과 실행이 따로 되는 이중성은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하며, 조합이나 회사는 실행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시각차가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혜롭게 도출시켜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KT 조직의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을 위해선 노사대표자들의 두 어깨는 실로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노사대토론회를 계기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노사대토론회의 성과와 앞의로의 과제

노사대토론회는 5월 초 노동조합에서 일정이 고지 되었고 노동조합은 나름대로 준비를 위해 노심초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경영 전반에 대해 이해를 쉽게하기 위한 자료준비, 명확한 분석과 방향제시를 통한 조합의 이해를 구하고자 천신만고의 노력은 KBN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편집된 내용이라 사안마다의 참여한 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은 마라톤 토론회의 속성상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인기성 발언이 자제되고 현안별 고성으로 오갔다는 전달자의 멘트로 미뤄보건데 노동조합이나 회사나 사심이 배제된 우리 KT를 위한 대의가 저변에 깔렸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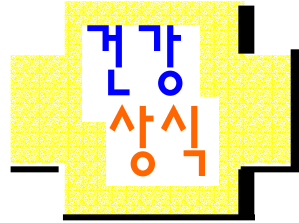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토론대로 실행따로의 이중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이나 회사나 총론에는 서로간 이해가 근접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실행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시각차가 들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도출시켜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걸음마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KT 조직의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을 위해선 노사대표자들의 두 어깨는 실로 무겁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사대토론회를 계기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입술로 보는

건강상식

입 안이 험고 헛바늘이 돋고... ‘피곤해서겠지 특별한 이유가 뭐 있을까?’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술병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각종 입병들, 증상별로 그 원인을 짚어보았다.

입은 여자의 상징, 윤택하고 붉으면 건강보통 관상을 볼 때 남자는 눈을, 여자는 입을 관찰한다.

이유는 음양의 이론상 남성은 양, 여성은 음에 해당되는데, 눈은 바로 하늘의 해와 같아서 양성의 정기를 뜻하고, 입은 바다와 같아서 음성의 정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입을 늘 물기가 마르지 않고 윤택해야 하며 붉고 도통해야 건강하다는 증거. 음식물을 공급하는 입, 위장과 친하다.

이처럼 여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입은 주로 위장이 주관한다. 입의 가장 큰 역할이 위장에 음식을 공급, 우리 몸을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 입은 크게 입술, 이, 혀,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견디지 못하고, 이가 없으면 생명의 꼭지인 혀가 보존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다시 부위별로 관장하는 장기를 따로 가지고 있다.

입술은 위장, 혀는 심장, 모든 장기가 오장육부와 직결 윗입술은 비장, 아랫입술은 위장이 관리한다. 따라서 입술에 무언가가 잘 나고 거울에 잘 트거나 갈라지는 사람은 위장, 또는

비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

그밖에 이는 신장, 혀는 심장, 입 안은 비위와 연관되어 있다.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를 치료받고, 혀에 무언가가 잘 나는 사람은 심장에 열기를 떨어뜨려주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술로 보는 나의 건강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 간 기능이 똑 떨어졌다.

유달리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도 몸이 좋지 않다는 신호다. 특히 간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면 뇌 신경에 무리를 주어 간기능이 저하, 입술이 마른다.

☞ 도움되는 한방차 = 박향차

◦입술 주변에 뾰루지가 난다 → 자궁, 방광에 혈액 순환 장애

입 주변에 뭔가 많이 난다면 자궁이나 방광 쪽의 이상 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한다. 이런 증상은 생리 불순이나 냉 대하 등으로 자궁 주변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되지 않기 때문.

특히 인종이 탁하고 어두운 색을 나타내면 자궁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 색이 집중되어 점처럼 나타나면 자궁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 도움되는 한방차 = 당귀차, 천궁차

◦입술 색이 검거나 푸르스름하다 → 심장에 혈액 부족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입술색에 변화가 생긴다. 입술이 검푸른색을 띠면 어혈이 뭉쳐 있기 때문. 핏기가 없는 입술은 기가 허하고 피가 부족한 상태고, 지나치게 붉다면 열이 많고

피가 넘친다는 증상이다. 이처럼 혈액이 탁하거나 부족하나 넘치냐에 따라 입술색은 달라진다.

☞ 도움되는 한방차 = 홍화잎차, 당귀차, 생기황차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른다 → 면역기능이 저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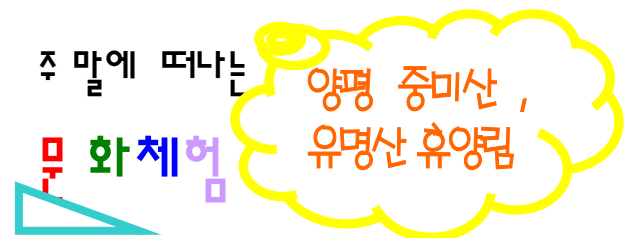
비장은 몸의 면역기능을 관할하는 곳. 비장이 약해지면 몸이 피곤해지고 저항력도 약해져 평소에는 몸 속에 숨어 있던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입술에 물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장을 튼튼히 해주는 게 관건.

☞ 도움되는 한방차 = 인삼차, 황기차

◦입술이 잘 트고 갈라진다 →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

입술은 비장과 위장의 지배를 받는다.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입술이 거칠어지고 트는 것. 위장에 영양을 공급해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면 치료에 도움된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런 증상은 더욱 악화. 영양상으로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트고 갈라지는 증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 도움되는 한방차 = 백출차, 박향차



[출처: <http://travel.waw.co.kr/>]

정기 질푸른 나무의 바다 `삼림욕`

숲길에 들어 진한 나무향을 맡으며 걷다 보면 누구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6주간KTTU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일러 삼림 옥이라고 한다.

산림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그 삼림옥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경기도 양평에서 가평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에는 도로변에 나란히 중미산휴양림과 유명산 휴양림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찾아갈 경우 37번 국도를 타기 위해선 양평에서 진입하건 청평에선 진입하건 모두 아름다운 강변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나절 드라이브를 겸해 다녀 오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양평길을 택할 경우 팔당대교에서 양수리, 흥천으로 이어지는 6번국도를 타고 직진하다 옥천냉면으로 유명한 옥천삼거리에서 351번 지방도를 타거나 양평읍까지 간뒤 양평군민회관을 지나 설악 방면 37번 국도를 타면 된다.

남한강과 나란히 달리는 6번국도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드라이브 코스중의 하나다.

푸른 수면과 누런 갈대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차창밖 풍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과 일상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는 묘한 설렘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나와 휴양림 찾아가는 37번 국도는 평화로운 들녘과 전원마을, 수림이 울창한 산자락 등지로 길이 이어져 그와는 또다른 감흥을 안겨준다.

차를 타고 용문산(1157m)과 유명산(864m) 중미산(834m)으로 이뤄진 고산지대를 통과할 때는 약간은 아찔한 스릴감마저 맛보게 해준다.

옥천에서부터 약 8km. 중미산휴양림은 바로 그 고산지대를 지나는 농다치고갯길 정상에 있다.

중미산은 산자락을 따라 침엽수림이 백백

이 들어차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다.

휴양림 중심부 자연학습로에는 12개의 환경해설판이 갖춰져 삼림옥과 함께 나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TV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며 연인들의 발길도 잦다고 한다.

유명산휴양림은 중미산휴양림에서 산길을 따라 설악, 청평방향으로 약 7km를 더 간 지점에 있다.

휴양림은 유명산유원지, 즉 입구지 계곡(유명산계곡)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다. 계곡이 깊고 숲이 울창해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을 방불케 한다. 낙엽송이며 전나무 등의 수목과 야생화가 휴양림 전역에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다.

숲길로 접어들면 싱그러운 숲의 향이 가슴 가득 밀려든다. 마치 산소 덩어리를 마시고 있다는 기분마저 든다.

특히 유명산 휴양림은 오토캠핑 명소이기도 한데 숲속 나무데크 위에서 숯불바비큐 등을 만들어 먹으며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휴양림에는 지난 2002년 9월 휴양림 입구에 300여종 48만여 포기의 한국토종식물을 모아놓은 자생식물원이 개원, 자녀들을 동반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드라이브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줄 음식으로 매운탕은 어떨까 .

유명산휴양림에서 청평으로 내려가는 37번국도상의 회곡리에는 30여년전통의 민물매운탕집 서호(031-584-0446)가 있다.

장어구이와 빠가사리나 쏘가리 등을 재료로 한 민물매운탕 등을 팔고 있는데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양념에 설악면에서 직접 재배해온 채소를 사용한다고 한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